

한 입

세계를 베어 물면서 했던 말은 잊지 않아야 한다

설령 그것은 아주 중간의 일

기억하지 않아도 될 자그마한 탄식

베어 문 세계의 안과 밖을 문질러 본다

겉이 없는 열매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나고 있다

높은 빌딩의 견고함은 사람의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

컧가를 때리는 앰블런스 소리에 나는

발 아래 일렁이는 핏물을 노려보곤 했으나

눈물로 축축하게 살아온 우리가

입안 가득 받아낸 것이 물이 아니라 불이었다면

나는 침묵하는 대가로 이 세계를 베어 문다

한입 가득

흐르는 삶이라는 진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영성하게 묶은 삶이라는 건

폭죽처럼 터진다

미끄러지고, 밟히고, 뭉개지며 흐른다

살기 위해 베어물고 흘러내리는

모든 것을 알게되는 일은 언제나 순식간이었으며,

사실,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공의 고백

열기로 축축해진 손끝으로

반대 손을 잡으면 느껴지는 또 다른 삶이 있다

달아 사라지길 바라며 만져보는 것

나는 삶의 구조를 믿는다

대도감의 시대

회색 잠바에 덩수룩한 수염
담배향이 어깨 근처를 맴돈다

신호등의 붉고 푸른 빛들이 새벽을 채우면
비로소 수염들은 움직인다
내내 까끌대고, 걸리적거려 적을 만들기 딱 좋다

속이 훤히 보이는 건물
수염난 그들은 적들이 살아갈 도시를 짓는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다
원수는 가끔 제 집을 지어주기도 한다

어릿한 통증이 올까 싶어서 준비한 진통제는
6층 아래로 떨어져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언젠간 가루약이 되고 말 것이다

수염은 고양이가 걱정되었다
그 약을 먹은 고양이가 잠에 들면 어떡하지
자리가 좋지 않았다

몇 발자국 걸으면 김 씨가 죽은 곳이다
그의 안경 조각이 아직 땅에 있다

녹지 않은 채로, 스며들지 못한 채로
김 씨의 빈자리에는 정 씨는 뽕뽕이가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 씨는 이곳에 있다

김 씨(60) 8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
김 씨(24) 크레인 전도 사고로 사망
김 씨(62) 크레인 전도 사고로 사망
김 씨(71) 자재 이동 중 낙하물에 맞아 사망
...
김 씨(27) 외벽 작업대에서 추락

원수가 소리치면 수염들은 수첩을 덮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

종종 김 씨와 닮은 사람이 보이면
고개를 더 깎듯이 숙인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들은 집입니다

대도감의 시대
가끔 수염은 자신이 어디까지 기록할 것인지
헛갈리곤 했다
수염들은 서로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나 여전히 집을 지었다

담배를 태워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염은 고개를 든다

고양이 울음소리
곧이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중 심해 어류 주의

우리는 끝내 쉬어야만 합니다 기억에 능해져야 합니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말했다

집에 가는 길
물가에 전단지 하나가 있어 집어들면 기괴한 크기의 글씨로

신중 심해 어류 주의라고 적혀 있다 그 미친 과학자가 직접 디자인해 뽑은 것 같았다 그의 영성한
증명사진은 오른쪽 위, 매우 수상한 각도로 붙여져 있었고 그 글씨보다 조금은 작은 글씨로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자신을 구해 달라고 말하면 얼른 물가에서 벗어나기를 권고한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구해달라고 할 리는 없다 그나저나 물고기가 말을 할 줄 알았던가?
분명 물에 빠진 사람이나 동물들일 텐데

가끔 구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보면
하얗게 질린 얼굴
사람들이 물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절뚝이는 몸들은 해가 질수록 붙어 거대해졌고
물가를 지나치고 또 지나쳤지만 집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영영 잊었다

이상한 일이다 집을 찾지 못하게 된 대가로
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세글자 네글자 두글자 모두 기억했다
안부를 물으면 물방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과 비슷하죠 단지 주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친 과학자는 전단지를 들이밀며 인간들을 설득했다
신중 심해 어류는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숨을 쉬고, 걸어다닙니다 당신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꺼내주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잃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가 살던 집을 잇은 것일까

가끔은 물 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병풍 밖으로 나가는 방법

발 아래 꽃더미
몸을 바닥에 붙이고
귀를 대 본다

꽃잎에서는 심장박동 소리가 났다
나무 밑둥에서는 검은 물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죽었나?

그러자 땅이 연신 화를 내며
나를 녹색 병풍으로 몰아넣었다
흔들거리는 땅의 열기가 일렁일렁

나무의 심방과 심실의 끝은 어떤 모양일까
말라붙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핏빛 슬픔이 아니라 흰 심장 박동에 가까울 텐데

화를 내고, 갈라지며 살아가는 나무에
피어나고 또 시작하는 잎이 있다

화를 내는 나무가 무서워 울다가도
눈을 뜨고 보았다

어지럽고 슬프다

내 몸통만한 나무 기둥에
십자를 그리고 나서야
병풍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빠져나올 때 나무는 피를 울컥울컥 쏟아내며
내게 뭐라고 속삭였다

마당에는 음식냄새가 자욱하고
누운 내 머리를 빗어주던 어르신,
꿈을 꿔라며 웃으신다
그림처럼 하얀 꽃 우수수 떨어진다

밭 아래는 여전히 꽃더미
잔치 음식으로 더부룩해진 배를 감싸 안고
몸을 구부정히 세워본다
울컥대는 내장들이, 움찔대는 점막들이,
내 안에 있다

무릎에 난 흉터를 하나 둘 세다보면
출구가 앞에 있었다

열매 맺기

넓은 타원 형의 열매

표면은 짙은 갈색

열고 얇은 흰색의 무늬가 느리게 오간 흔적이 있다

햇살은 언제나 자그맣게 속삭이므로

열매들은 비밀을 품었다

느린 나무가 되기 위해

맺어진 결연 안에서

열매들은 뿌리서부터 성실하게 부여잡아 가며

제 몸집을, 무늬를 늘린다

이남의 양지바른 땅에서 자라난 열매들은

매끈한 껍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껍질을 매만지는 걸

행운으로 여겼다

열매를 만진 손들이 만나면

행운이 곱해진다는 속설을 아니

나무와 땅 사이에

길쭉한 풀들을 키우면 나무와 잡초가 함께 자란다

나무 그들은 춤지도, 서글프지도 않다

마음껏 흔들리며 뿌리를 단련한다

의심하고, 불려들인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손을 잡자는 나긋한 음성

그렇게 평화의 테두리는 점점 넓어진다

결계는 언제나 둥글고 얇다